

## 삶의 질과 의복의 자아근접도

전경숙<sup>†</sup> · 박혜정\*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의류패션산업전공,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과

### Quality of Life an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Scale

Kyung Sook Jeon<sup>†</sup> · Hye Jung Park\*

Division of Apparel & Fashion Business, Hansung University

\*Dept. of Liberal Arts,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2007. 12. 11.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esent the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PCS) which is a subjective measure developed by Sontag and Lee(2004). PCS is the scal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clothing. Since PCS scale was prepared for American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as a measure to Korean consumers. Consumers' quality of life are functionally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all of life's domain and subdomains. Clothing in life facilitates the creativity and expressiveness to the wearer, especially to adolescent. The concept of bottom-up spillover effect developed by Lee et al.(2002) was adopted as research model.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using convenient sampling, 419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It was proved that PCS scale was effective measure to Korean consumers. And also PCS scale could be a proxy indicator in view of the fact that clothing was deeply related to consumers' quality of life.

**Key words:** Quality of life,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Bottom-up spillover effect; 삶의 질, 의복의 자아 근접도, 상향전이 효과이론

#### I. 서 론

인간의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건강이나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개별적인 삶의 영역(domain specific)에서의 만

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리적 접근으로는 자신과 동일시가 가능한 소유물을 통해 표현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동진(2007)은 개별 소비단계에서의 만족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으로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수직적 상향전이 효과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의복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상황, 정서적 취향, 심리적 특성 등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소유물이다. 의류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삶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개인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복은 자신과 동일시가 가능한 소유물이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ksjeon@hansung.ac.kr

본 연구는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위 차원의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 소유의 자동차나 주택 등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소유물이 없으므로 의복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소유물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아표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복을 자아의 표현수단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 수단 중에서 Sontag and Lee(2004)에 의해 개발된 의복의 자아근접도 척도(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scale; PCS)를 평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의복의 자아근접도를 의복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사용하였다. 1979년 이후 Sontag 등에 의해 연구된 PCS의 개념은 의복을 개인의 심리적 근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structure)로서 의복과 자아의 일치감, 또 과정(process)으로 자아와 의복의 관련성, 자아존중과 관련된 의복, 사회적 도구로서 의복이 가지는 대인지각의 기능,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와 관련된 의복과 자아의 관계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의복과 자아의 관계를 보여주고 관계의 밀착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의복의 중요도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PCS 척도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용하여 의복의 자아근접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 PCS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의복과 자아의 관계가 의복을 통한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개별 하위 차원에서의 만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상향점이 효과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서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을 측정하여 결국 총체적인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복과 자아(self)

의류학에서 이루어진 자아에 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James는 자아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정의하였으며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Cooley는 자신에 대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면경자아로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평가

적인 대화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Mead는 자아의 형성을 주체(I)와 객체(me)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신을 행동하는 주체로서 창조적이고 실험적이며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주체적인 자아와 또 다른 나는 나와와 대화를 통해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타자적 성향을 갖는 객체적 자아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보다 최근의 이론으로 Rogers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개념을 통해 자아의 불일치로 심리적 부조화를 겪으며 현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다양한 방어기제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임숙자 외, 2004).

인간은 많은 주변적 영향 요인, 예를 들어 주택, 직업, 소득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요소와 사회집단이나 문화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의복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신체에 근접한 환경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복은 즐거움을 주고 미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개인의 창의성과 독특성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정서적 특성이 투영되는 심리적 근접물(psychological clos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며 이는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서 자아 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의미한다(홍금희, 2006).

Kaiser(1990)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상징하는 물건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의복은 문화적 상징물로 그 사회 속에서 발생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완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Sontag and Schlater(1982)는 의복과 자아는 신체적 차원에서도 근접할 뿐 아니라 정신적 의미에서도 근접하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과 자신의 의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거의 유사한 답을 보인다고 하였다. Kaiser(1990)는 자아, 의복, 외모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자아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이며 외모의 측면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윤정, 2004; Lennon et al., 1999). 의복은 자아를 표현하는 가시적 수단으로 자아를 가장 근접하

게 나타내는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나며 의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을 대리적으로 평가하는 척도(proxy indicator)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의복의 자아근접도(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본 논문에서는 의복과 자아의 관계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 중에서 의복을 통한 자아개념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해 Sontag 등에 의해 개발된 의복의 자아근접도(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PCS)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PCS척도를 국내에 소개한 조기여, 유태순(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복의 자아근접도'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970년대 후반에 Sontag은 자아와 의복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을 구상하였다. 초기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유기술식 질문으로 구성하였다(Sontag, 1979). James, Cooley, Mead, Rogers, Rosenberg, Secord and Jourard, Stone, Wells and Marwell의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Buckley and Roach, Creekmore, Dickey, Roach and Eicher, Ryan 등 의류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개발하였다(Sontag & Schlater, 1982). 이 개념은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의 구축과 평가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의복은 물질적 환경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근접해 있으므로 의복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PCS는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PCS가 높은 사람이라면 의복은 그의 삶에 독립성, 즐거움, 매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복은 창의성과 표현력의 수단이며 즐거움을 주고 미와 매력의 수단으로 지각될 것이다. 반면 낮은 PCS를 보인다면 의복을 통한 사회적 또는 감정적 욕구의 표현에 대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평가할 것으로 Sontag and Lee(2004)는 지적하고 있다.

PCS를 이용한 국내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나 조기여, 유태순(199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1978년도에 개발된 90문항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뒤 29문항을 사용하여 의복의 자아근접도와 퍼스널 스페이스의 관련을 측정하여 대인지각에서 공간 및 위치가 개인의 PCS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PCS는 의복과 착용자의 관계

를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다면적 자아를 평가하여 의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므로 의복과 자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 3.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이며 지향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종합적이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 또는 '삶의 만족'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웰빙(well-being)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허경옥, 2007). 또한 이와 관련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남수정, 유현정, 2007). 그러나 아직 웰빙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의류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생각된다.

이동진(2007)은 삶 전반에서의 만족감에 대해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향적 전이효과(bottom-up spillover effect)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각 개별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개인 소비자의 삶의 만족은 각 소비영역에서의 만족감에 의해 전파되며 소비경험의 총체적인 만족이 전체적인 삶의 만족으로 전이되는 것을 상향적 전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하향적 전이효과(top-down spillover effect)에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이 개별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삶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개별 삶의 만족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수평적 전이효과(horizontal spillover effect)는 한 개별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감에 수평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향적 전이효과와 하향적 전이효과는 수직적 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상향 전이는 개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각 부분에서의 여러 경험과 욕구의 충족이 다른 부분의 삶의 만족과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ee and Sirgy(2003)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상향식 평가법은 하위차원의 만족을 평가하여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모델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의복을 삶의 차원을 평가하는 하위영역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후기의 시기적 특성상 의복은 매우 중요한 삶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진(2007)의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차원을 가진 인간의 삶의 질은 개별적인 삶의 영역(domain specific quality of life)에서의 만족감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Lee et al.(2002)와 이동진(2007)의 연구에 의거하여 개별 삶의 영역으로 의복을 선택하여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이 총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복과 자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PCS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Sontag 등이 개발한 PCS척도는 원래 의복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개념에서 의복을 가장 근접한 환경 요소로 간주하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을 생태적 환경의 한 요소로 간주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보는 차원에서 PCS와 의복을 통한 삶의 질,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ee and Sirgy(2003)와 이동진(2007)에 소개된 well-being marketing에서 사용한 개별 삶의 영역에서의 평가와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할 척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의복이라는 근접환경이 인간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PCS와 의복영역에서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S가 의복을 통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은 총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의복의 자아근접도인 PCS와 의복을 통한 삶의 질,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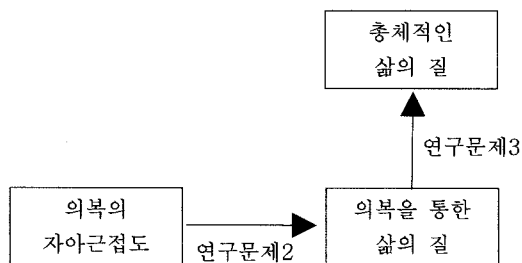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문제 2, 3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1. PCS가 국내의 의류 소비자의 자아근접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타당한가?  
 연구문제 2. PCS가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인가?  
 연구문제 3.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이 총체적인 삶의 질에 기여하는가?

#### 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Sontag 등은 1979년 이후 의복과 자아와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 208개의 문항에서 출발하여 여러 번의 연구를 거쳐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4세에서 20세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38문항으로 구성된 PCS 척도를 통계적 검증과정을 거쳐 24문항의 4개의 차원을 가진 척도로 구성하였다. 국내연구에서 PCS척도를 사용한 조기여, 유태순(1999)은 18세에서 4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연령층이 유사한 Sontag and Lee(2004)에서 사용된 24문항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6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6점은 '항상 그렇다'로 하였다. 이를 요인 분석하여 Sontag and Lee(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PCS척도를 한국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의복을 통한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Lee and Sirgy(2003)와 이동진(2007)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을 통한 삶의 질(Lee & Sirgy, 2003)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의복이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중요한가?'와 '당신의 의복이 당신



<그림 1> 의복의 자아근접도, 의복을 통한 삶의 질, 총체적인 삶의 질의 관계

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2문항(신뢰도 계수  $\alpha=.8178$ )으로서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이며 5점은 ‘매우 많이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총체적인 삶의 질은 Andrews and Withey (이동진에서 재인용, 2007)가 사용한 Delighted-Terrible Scale을 사용하였고 문항은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이며 1점은 ‘비참하다’ 7점은 ‘아주 행복하다’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에 소재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419부가 분석되었으며 통계처리는 확신적 요인분석은 AMOS 4.0을 사용하였고 그 이외는 SPSSWIN 10.0이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연령은 평균 21.83세(표준편차 1.99세)이며 19세 이하 9.6%, 20~22세 57.5%, 23~25세

26.0%이고 26세 이상은 5.7%이다. 성별로는 남자 105명, 여자 314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많다. 가계 총 소득수준은 월 200만원 이하가 3.1%,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가 38.2%,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가 29.6%이고 600만원 이상이 26.3%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PCS 척도의 요인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된 문항은 모두 24문항이며 통계 처리 중에서 1문항이 요인 2와 요인 3에 이중으로 적재되어 삭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23문항이다. 이들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신뢰

<표 1> PCS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communality	eigenvalue	cumulative(%)	Cronbach's $\alpha$
요인 1: 자아존중감	-적절한 의복을 갖춰 입었을 때 자신감이 증대된다.(PCS1)	.66	4.87	20.27	.92
	-근사해 보이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과 더 잘 대화할 수 있다.(PCS2)	.54			
	-나한테 잘 어울리는 좋은 의복을 착용하면 내 능력이 향상된 듯한 느낌이 든다.(PCS3)	.57			
	-내가 착용한 의복에 만족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PCS4)	.77			
	-특별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옷이 있다.(PCS5)	.62			
	-공들여 의복을 잘 차려 입으면 자신의 모습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PCS6)	.75			
	-내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된다.(PCS7)	.63			
	-새로 입을 옷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진다.(PCS8)	.77			
요인 2: 자아일치	-내가 입은 의복은 곧 나를 나타낸다.(PCS9)	.67	4.18	37.67	.89
	-나의 의복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일부이다.(PCS10)	.67			
	-의복은 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PCS11)	.74			
	-나는 내가 입는 의복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충분히 표현하기를 원한다.(PCS12)	.61			
	-나의 의복과 스타일은 남들에게 나의 사고방식을 알려준다.(PCS13)	.77			
	-나는 의복을 통해 남들에게 나의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다.(PCS14)	.78			
요인 3: 타인의 평가	-나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내 의복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중요하다.(PCS15)	.78	3.89	53.89	.85
	-내가 착용한 의복스타일을 보고 남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서 중요하다.(PCS16)	.8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옷차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PCS17)	.69			
	-특별히 눈에 띄는 브랜드나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는 신경이 쓰인다.(PCS18)	.59			
요인 4: 신체이미지	-나는 몸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은 되도록 입지 않는다.(PCS19)	.46	2.56	64.56	.74
	-나는 체형을 감추기 위해 특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PCS20)	.80			
	-옷이 몸에 잘 맞으면 체형에 대한 만족이 커진다.(PCS21)	.52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옷을 입는다.(PCS22)	.81			
	-내 신체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의복을 고른다.(PCS23)	.69			

도 계수가 .92에서 .74 사이를 보이며 전체 설명력은 64.56%를 보이고 있다. 이는 Sontag and Lee(2004) 등이 24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와 동일한 요인과 문항구성으로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Sontag and Lee(2004)가 개발한 PCS척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1은 의복을 통한 자신감의 증대와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을 통해 자신감에 대한 평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복은 자아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이라고 이름 하였으며 Sontag and Lee(2004)의 연구에서는 'clothing in relation to self-esteem'에 해당된다. 즉 의복을 통해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 2는 의복은 곧 자신임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의복은 환경이나 소유물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의복과 자아의 동일시를 의미한다. 의복은 곧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 자체이며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으로 구조적 차원으로 자신의 self-image로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일치'라고 이름 하였으며 Sontag and Lee(2004)의 연구의 'clothing in relation to self as structure'의 차원이다. 요인 3은 의복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타인의 수용과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복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의미하며 '타인의 평가'라고 이름 하였으며 Sontag and Lee(2004)의 연구의 'response to judgements of others'에 해당한다. 요인 4는 신체 이미지와 신체만족과 관련한 의복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착시를 통해 의복이 신체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이 의복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이미지'라고 이름 하였으며 Sontag and Lee(2004)의 연구에서 'clothing in relation to body image and body cathexis'에 해당된다.

탐험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내용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으로 검증하기 위해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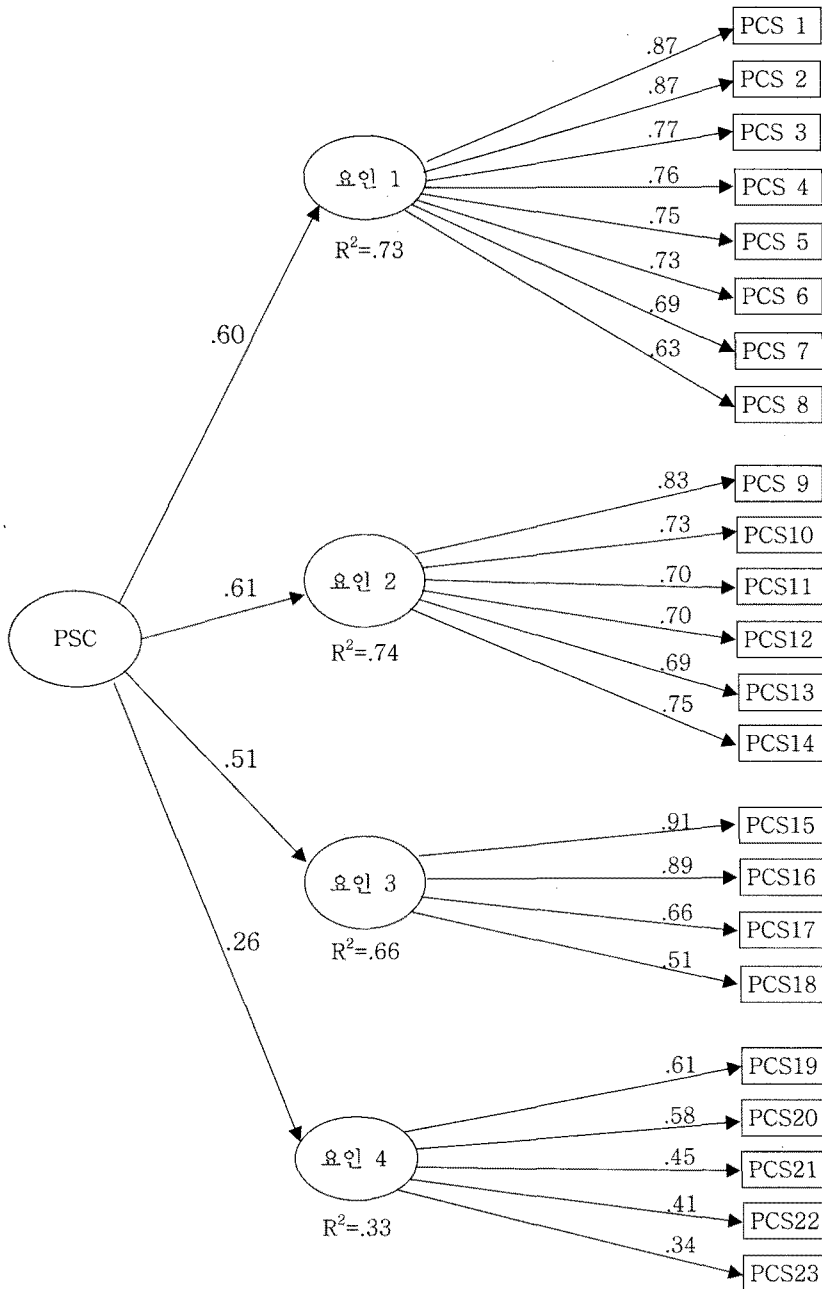
차의 잠재변수인 PCS와 저차의 잠재변수인 4개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는 고차 요인분석(Higher-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요인의 배후에 2차 요인이 있는 2차 요인분석(Second-Order CFA)으로서 PCS(2차 요인)와 요인들(1차 요인)과의 분석으로서 PCS척도에 대한 Full Structural Model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시 10 이상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처리한 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켜 도출된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으며 모든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수준은 .001을 사용하였다.

적합성 판단 지수로서  $\chi^2$  통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검증의 경우 표본의 수가 200개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설정된 모형이 점차 적합하지 않은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 표본 자료에 의해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chi^2$ 검증은 자료를 설명하는 모형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어 모형적합도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연구(김철 외, 2005)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절대부합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GFI=.927, AGFI=.903, TLI=.964, CFI=.971로 나타나 최저의 적합성 수준인 .90 이상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LI와 CFI가 .95 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 RMR(.065)은 .5 이하로 이상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단계 잠재변수의 다중상관치 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보면, 요인 1의 자아존중감 잠재변수가 분산의 73%, 요인 2의 자아일치 잠재변수가 분산의 74%, 요인 3의 타인의 평가 잠재변수가 분산의 66%, 요인 4의 신체 이미지 잠재변수가 분산의 33%가 PCS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다중상관치 제곱을 비교해 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일치 잠재변수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자아일치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PCS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타인의 평가 잠재변수도 비교적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신체이미지 잠재변수는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표 2> Full Structure 모형의 적합성 판단 지수

지 수	$\chi^2$	P	RMR	GFI	AGFI	TLI	CFI
값(N=419)	378.772	.000	.065	.927	.903	.964	.971



<그림 2> PCS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신체적 자아보다는 정신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와 의복의 일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에서 보면 자아존중감의 관측변수는 모두 8개로 구성되며 경로계수는 .63에서 .87로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아일치의 관측 변수는 6개로 구성되며 경로계수는 .69에서 .83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측변수는 4개로 구성되며 경로계수는

.51에서 .91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관측변수는 5개로 구성되며 경로계수는 .34에서 .61로 다른 요인에 비해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PCS는 한국 소비자의 의복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 PCS와 의복을 통한 삶의 질**

<표 3>을 보면 의복과 자아의 근접성을 측정한 PCS척도의 평가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의복이 가지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용이다. 6점 척도에서 4.6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적절한 의복이 자신감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의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고 더 좋은 기분을 갖게 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복은 평가적 차원에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적 차원에서 기분을 좋게 하며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복을 자신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인은 외국인보다 더 신체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고려

할 때 패션상품의 기능 중에서 신체의 결점을 극복하는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유행스 타일이나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에 대한 강압적 상황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며 의복에 의해 불만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패션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신체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CS의 각 요인들이 의복을 통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의 F값은 61.57로 유의하며 R<sup>2</sup>은 .38로 나타났으며 하위 차원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일치는 각각 .38과 .39의 설명력을 보여 의복을 통한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나 신체이미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복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의복의 영향력은 정신적 자아의 차원에서 의복이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은 개인적 차원의 만족을 통한 자신감의 고양 및 강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의복의 영향력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3. PCS, 의복을 통한 삶의 질, 총체적인 삶의 질의 관계**

연구문제 2와 3의 분석을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56(F값: 186.67\*\*\*)이며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CS와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복의 자아근접도가 높을수록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이 높다는

<표 3> PCS 하위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요인명	평균(표준편차)
요인 1: 자아존중감	4.68( .92) A
요인 2: 자아일치	4.02( .93) B
요인 3: 타인의 평가	4.08(1.01) B
요인 4: 신체이미지	3.62( .93)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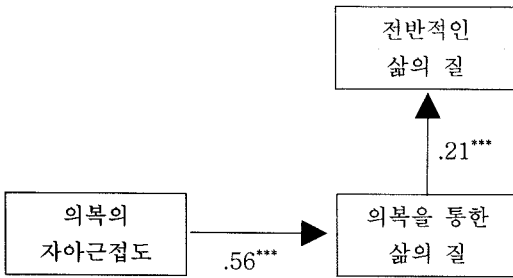
\*6점 척도이며 값이 클수록 의복과 자아의 일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함. 영문자는 paired t-test에 의해 요인간의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문자가 다르면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의미함.

<표 4> PCS 하위요인과 의복을 통한 삶의 질과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value	F value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의복을 통한 삶의 질	요인1: 자아존중감	.38	5.97***	61.57***	.38	.37
	요인2: 자아일치	.39	7.14***			
	요인3: 타인의 평가	-.11	-1.77			
	요인4: 신체이미지	-.02	-.38			

\*\*\*p<.001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의 회귀분석결과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PCS의 척도개발 시 Sontag and Schlater(1982)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에 대한 실증적 제시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결과인 PCS척도에 대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타당성 뿐 아니라 PCS개발에 기초한 삶의 질 중에서 의복을 통한 삶의 질과의 관계도 국내 소비자에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문제 3은 상향적 전이효과를 측정된 결과이며 의복을 통한 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는 .21(F값: 19.46\*\*\*),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총체적인 삶의 질은 의복을 통한 삶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이는 의복의 자아근접도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의복의 자아근접도 척도를 한국 소비자에게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복의 자아근접도가 의복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적 수단으로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이다. 셋째는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이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ontag and Lee(2004)가 개발한 의복의 자아근접도(PCS)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을 통한 상향식 전이방법을 개발한 이동진(2007)의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대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PCS척도를 탐험적 요인 분석한 결과 Sontag and Lee(2004)가 분석한 것과 동일한 요인과 동일한 문항으로도 출되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PCS는 미국 소비자 뿐 아니라 한국 소비자의 자아근접도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PCS는 소비자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의 자아표현수단으로서의 의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시하는 연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ontag and Schlater(1982)가 PCS의 척도 개발 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증적으로 PCS와 의복을 통한 삶의 질 및 전반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는 밝혀진바 없었다.

의복과 자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PCS의 4개 하위 차원은 자아존중감, 자아일치, 타인의 평가, 신체이미지이다.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PCS의 하위차원에 의한 영향력을 측정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일치가 유의한 설명변수인 반면 타인의 평가나 신체이미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일치는 의복이 착용자의 개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존욕구의 충족이나 자아향상성 욕구의 충족, 그리고 개성적인 자아표현을 통한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 만족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복의 의미전달력이 자신의 목표 가치와 유사 또는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웰빙마케팅(이동진, 2007)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웰빙트렌드의 확산 및 소득의 증가에 따라 주요 소비욕구의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기능적 욕구를 추구했다면 이후 성장 및 풍요의 시대에는 타인 모방이나 비교 등을 통한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고 이후에는 나만의 취향이나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자존적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비욕구는 자아실현적 욕구를 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신체적 이미지는 기능적 욕구로 체형과 의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의 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인의 평가나 반응과 같은 사회적 욕구도 개인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는 영향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이나 자아일치감과 같은 자존적 욕구나 자아실현욕구는 매우 강하게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즉, 의복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기능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보다는 자존적 욕구나 자아실현욕구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복과 자아의 관계를 설명한 PCS척도는 의복을 통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복을 통한 삶의 만족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도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의복을 통한 상향적 전이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결국 의복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하위영역을 차지하는 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을 통한 삶의 질은 개별 삶의 영역에 대한 평가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복은 청소년기의 소비자에게 중요한 자아 상징 수단이며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의 도구적 사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 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남녀 간 성별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의 결과해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수집이 서울로 제한된 점도 연구의 한계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연령적으로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Sontag and Lee(2004)에서 14세에서 20세를 대상으로 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Sontag and Lee(2004)의 연구에서 38문항으로 측정된 결과를 탐험적 요인 분석의 검증과정을 거쳐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척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렬, 성도경, 이환범, 송건섭, 조태경, 이수창. (2005). *통계 분석의 이해 및 활용*. 서울: 도서출판 대명.
- 남수정, 유현정. (2007). 소비자의 웰빙태도 및 웰빙상품에 대한 만족도: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1-14.
- 이동진. (2007). *소비자 웰빙마케팅*. 서울: 박영사.
- 이윤정. (2004). 신체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974-982.
-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 (2004). *현대의상사회 심리학*. 서울: 수학사.
- 조기여, 유태순. (1999). 의복의 자아근접도에 따른 퍼스널 스페이스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423-434.
- 허경옥. (2007). 웰빙추구성향과 웰빙구매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 요인의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5(9), 89-98.
-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348-357.
- Kaiser, S.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Co.
- Lee, D. J. & Sirgy, M. J. (2003). Developing a measure of consumer well being in relation to personal transportation. *Yonsei Business Review*, 40(1), 72-101.
- Lee, D. J., Sirgy, M. J., & Wright, N. D. (2002). Developing a subjective measure of consumer well being. *Journal of Macromarketing*, 22(2), 158-169.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Sontag, M. S. (1979). *Clothing as an indicator of perceived quality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Sontag, M. S. & Lee, J. (2004).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sca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4), 161-177.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